

시대와 만난 캠페인, 역사를 바꾼 투표

교수칼럼

안승범
국어국문학과 교수



어떤 선거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어떤 투표는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여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두 달 전 국내외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던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신화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눈부신 성취는 시대 변화에 올라탄 자들의 투표가 만든 기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물론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92년 역사에 새로운 족적을 남긴 건 작품의 완성도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카데미가 비영어권 영화에 열렬한 찬사를 보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비영어권 영화 중 <기생충>만큼 빼어난 작품들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기생충>이 새 역사를 쓴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찾던 미국 영화 예술과학아카데미(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 AMPAS라고 약칭) 회원들의 내면에 선거운동을 능가한 <기생충>팀의 ‘오스카 캠페인’이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심은 덕분이라고.

아카데미는 여느 세계적인 영화제와 달리 ‘오스카 레이스’로 불리는 홍보활동 기간을 거칩니다. 후보작 선정 및 수상작 선

정에 대한 투표권은 AMPAS 회원들에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AMPAS의 회원 구성은 할리우드 산업의 생태계에 일조하는 다양한 진영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요. 이를테면 배우, 감독, 프로듀서, 경영진뿐만 아니라 캐스팅 디렉터, 촬영감독, 의상 디자이너,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물론 분장 아티스트, 헤어스타일리스트에 이르기까지 17개 분과로 나뉜 전문가 집단이 투표권을 분배받습니다. 흥미로운 건, 8,500여 명에 달하는 회원 대다수가 투표권을 영구적으로 행사할 순 없다는 점입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 한해 투표권이 유지되지요.

그럼에도 미국 바깥의 영화팬들에게 아카데미 시상식이 매우 보수적인 영화제로 기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해 새로운 심사위원단이 소규모로 꾸려지는 여타 글로벌 영화제들은 과격적인 수상작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아카데미의 수상작 선정 과정은 보편성과 안정성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보편성’과 ‘안정성’이란 표현 배면에 영화 선정에 관한 문제적 국면이 감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2015년까지 투표권을 가진 AMPAS 회원들 중 남성 비율은 70%를 상회했습니다. 회원의 평균 나이는 60세 안팎이었으며, 영화계 내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보면 배우들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적으로 백인의 비율이 매우 높게 유



(사진=중앙일보DB)

지되어 왔지요. 그런 까닭에 아카데미 시상식은 긴 세월, 미국 백인 중년 남성들의 입김에 의해 수상작이 결정된다는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기생충>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처럼 던져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준호를 비롯한 <기생충>팀은 지지를 호소하는 ‘오스카 캠페인’을 거치는 동안, 그러한 시대 변화의 여망에 기름을 붓고 작은 불씨를 옮기는 메시지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중에서도 아카데미 시상식을 ‘로컬 영화제’로 규정하고 ‘자막(언어)의 벽’에 막힌 미국인의 영화 관람 문화를 상기시키는 화법은 폐부를 찔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생충>은 시대의 저류에 흐르는 목소리를 끌어안은 캠페인과 그에 부응한

역사적 투표덕분에 새 역사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어권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을 받은 건 최초의 업적이며, 이는 아카데미 92년 역사를 통틀어 매우 의미있는 단절적 진화의 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썼던 문장들을 다시 옮겨보고자 합니다. 어떤 선거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어떤 투표는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여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 정치권이, 그리고 투표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한 <기생충>팀의 ‘오스카 캠페인’을 좀 더 성찰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보다 길고 긴 미래를 가진 여러분이 4년에 한번 돌아오는 소중한 권한을 진지하게 행사할 수 있길 권합니다.

참여마당

노승우
자율전공학 2018



묵념으로 시작하는 생일

하루 일과를 끝내고 하교하는 길, 항상 걸어왔던 길이지만 그 날만은 특별했다. 4월 16일, 그날은 나의 생일이었다.

친구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들어간 집 안의 공기는 사뭇 조용했다. 엄마는 나를 반겨 주시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셨고, 아빠는 방금 일터에서 돌아오신 건지 외출복 그대로 우두커니 거실에 서계셨다. 두 분의 시선을 따라 간 TV에선 큰 배가 침몰하고 있는 사진만이 보일 뿐이었다.

어린 나이에 나는 그저, 행복해야만 하는 나의 생일 날 분위기가 어두운 것이 썩 맘에 들지 않았다. 모두 구조하지 못했다고 한들, 그리 큰 사고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뉴스 앵커가 빠른 구조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니, 배에 있는 수많은 구명 중 하나로 빠져나온다면 분명 모두 살아서 가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들은 배 속에서 점점 빛이 사라짐에 절망했고, 물에 나와 있던 가족들은 그들을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속보입니다.” 만을 반복하는 아나운서를 바라보며 부모님과 함께 숨죽이고 TV를 볼 뿐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분위기는 더 침울해져만 갔다. 50명만 더, 10명만 더, 아니 1명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원했지만, TV 한 편의 ‘구조자’ 수는 쉽사리 변하는 일이 없었다. 차라리 처음부터 희망을 주지도 말지. 희망이 모두 꺾인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슬픔과 고통의 감정만이 서려있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던가, 모두가 ‘세월호 침몰’이라는 사건 속에 갇혀있을 때에도 시간은 흘러갔다. 마치 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듯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절망에 쓰러져있던 사람들도 시간엔 등을 떠밀려, 점점 앞으로 기어가다가 눈물을 닦고 걸어갔다. 사라진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계속해서 슬픔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맘을 다해 기억하는 것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의 매년 생일 아침은 묵념으로 시작한다. 그때 그날, 철없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사라진 사람들과 그들을 영원히 기억할 가족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드리고자 묵념한다. ‘세월호 참사’는 사건을 마주했던 이들 모두의 마음속 상처이다. 이 상처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아주 심한 것이기에 치료하려 하면 할수록 그 고통만 심해질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상처를 짊어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상처를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 말이다.

2020-1학기 경희공도전장학 신청 안내문

1. 지원대상
- 2020-1학기 기준 3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재학생
 -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의지가 있는 학생
 -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 장학금위배자, 2010-1학기 휴학(예정)자 신청불가
 - 성적 및 이수학점, 가계곤란정도 제한없이 신청가능
 -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
2. 신청제한
- 경희공도전장학 기수혜자는 개인 또는 팀리더로 신청불가
 - ※ 경희공도전장학 기수혜자를 팀원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경희공도전장학 신청주제로 타 장학금을 수혜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불가 (ex) 독립연구, 전환21장학 등
3. 도전분야 : ①창업 ②봉사 ③탐방 ④연구 ⑤자유주제
- ※ 분야를 택일하여 장학신청
 - ※ 도전분야와 활동계획서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 ※ 연구분야의 경우 중간/결과보고서 등 모든 결과물을 논문 형식으로 제출하여 하며 이 점을 참고하여 신청하되 기 바람
4. 선발인원 : 50명/팀 내외
- ※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장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선발방법
- 가. (1단계) 서류평가(100점)로 최종선발인원의 1.5~2배수 선발
(2단계) 면접평가 후 서류평가(100점) + 면접평가(100점)로 최종대상자 선발
- ※ 서류 및 면접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탈락됨
- 나. 평가항목 및 반영비율

- ※ 평가항목은 분야별로 배점점수가 상이할 수 있음
 - ex) 창업 :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45점), 실행결과의 공공성(10점)
봉사 :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25점), 실행결과의 공공성(25점)
6. 장학금 지급액 : 1인/팀당 200만원~500만원
- 가. 개인/팀이 본인의 도전주제 및 실행계획에 따라 희망장학금액(① 200만원 ②300만원 ③400만원 ④500만원) 선택
- ※ 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이 신청한 장학금액과 수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나. 장학금 선발 시 수혜금액의 1/2 선지급, 중간보고서 제출 후 잔여장학금의 1/2(수혜금액의 1/4)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발표회 참석 후 심사를 통해 잔여 장학금(수혜금액의 1/4) 지급
- 예) 공도전장학금 500만원 선발자 : 선발시 250만원 지급, 중간보고서 제출 확인 후 125만원 지급, 결과보고서/결과발표회 종료 및 학인 후 125만원 지급
-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의무사항 이행없이 도전을 포기할 경우 기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환해야 함
 -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도 그 과정 및 결과물이 부실할 경우 최종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등록금 이외 장학으로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 라. 팀으로 응모한 경우 팀 리더에게 전액 지급됨
7. 장학금 신청 방법
- 가. 신청기간 : 2020.03.25(수) 09:00 ~ 04.17(금) 17:30
- 나. 신청방법 : 인포21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별도 제출
- 1) 온라인신청 : 인포21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0-1학기 경희공도전장학 신청
- 2) 서류제출
- 가) 제출기간 : 2020.04.14.(화) 09:00 ~ 04.17(금) 17:30
- 나) 제출처 : 학생지원센터(장학)(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8번 데스크)
- ※ 활동계획서는 서류제출 기간 내 janghak1@khu.ac.kr로 파일형태로 제출해야 함
 - ※ 팀으로 신청 시 학생정보란에 팀리더 및 팀원 모두 기재 (기재형식은 자유)
- 다) 제출서류
- (1) 경희공도전장학 신청서(온라인신청서 출력물) 1부
- (2) 경희공도전장학 활동계획서(첨부양식) 1부
- (3) 경희공도전장학 지도교수추천서(첨부양식) 1부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센터(장학)

2020학년도 후기 평화복지대학원 유엔평화학과 신입생 모집

「국제기구 진출의 첩경」

- UN(UNITAR, WFUNA) 관련 학과
- 평화학 석사학위 수여(Master of Peace Studies)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기숙장학 제공

- 모집과정 : 석사과정
- 모집전공 : 유엔평화전공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수시)
- 모집기간 : 5월 4일 ~ 7월 4일 (수시 모집)
- 온라인 원서접수 : <http://www.unpeace.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 이메일 gj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2020년 후기 평화복지대학원 국제평화거버넌스 학과 신입생 모집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기숙장학 제공
- 대학원 독립 캠퍼스

- 모집과정 : 석사과정
- 모집전공 : 국제평화 전공, 인권과 시민사회 전공
- 전형방법 : 논술 및 면접
- 원서접수기간 : 5월 4일(월) ~ 16일(토)
- 온라인 원서접수 : <http://gjp.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 이메일 gj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